

유망 전북청년미술가 널리 알린다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특별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내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2019 성장공간·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했거나 현재 입주 중인 서완호, 임희성, 최은우의 작품 17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창작스튜디오에서 체류하면서 창작하고 활동하는 전북청년미술가들의 작품세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마련하였다.

유망한 입주미술가들에게 창작 발표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완호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프랑스 파리, 광주, 전주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삼, 네트워크'展(2018, 송창 예술국제미술관, 중국) 등 다수의 기획초대전에 참여했다. 중국 상해 운아트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광주 로터스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19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린 시절 비디오 오브젝트 속 액션영화를 보며 주인공과 같은 세계에 있다고 착각하다가 부모님의 부름에 강제 정지한 화면 속에서 현실을 깨닫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 도시 풍경은 현실 같은 착각과 깨진 꿈속에서 바쁘게 왕복하는 영상 속 허구 이미지처럼 느껴진다.

임희성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와 및



임희성 미술가의 '가족풍경'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전주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의외로 심플한 현대미술展(2017 전북도립미술관) 등 다수의 기획초대전에 참여하였다. 2018 전북문화관광재단 신진예술가로 선정되었고, 2012 가송예술상(동화약품)을 수상했다. 임희성에게 산수(山水)는 공간의 이야기와 시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이다.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의 가족사진이 마치 하나의 산수처럼 다가왔고 평범한 가족 사진에 산수의 시간과 공간적 요소가 한 컷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느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선으로 표현하며, 여러 공간을 만들어 냈다.

최은우는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및 심화과정을 졸업했다. 개인전을 2회 개최하였

고 완주복합문화공간 누에(nue), '누에플리에' 개관전(2018), 여성인권 비엔날레, '선미촌리본 프로젝트' (2018), 연석산미술관-누에 레지던스 창작교류전 '꽃 피우다' 등에 참여했다.

2017 전북문화관광재단 신진예술가로 선정되었다. 최은우는 패턴을 이용한 드로잉과 회화와 조형예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드로잉을 겸하고 있으며 움직임의 잔상, 사회적 사건과 일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 흔적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첫 개인전부터 끊임없는 '구분 짓기'를 반복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풍남문에서 우편국까지 100년의 행진'

전주시, 기록물전시회 진행... 독립운동가 추모·재조명

전주지역 독립운동가 58인을 추모·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 4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풍남문에서 우편국까지 100년의 행진'을 주제로 '제5회 기록물 전시회'가 진행된다. 전시회는 '3·1운동 및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의 입상작 2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다시 걷는 전주 3·1운동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 선 학생들 ▲전주, 태극기로 물들다 ▲승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스토리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이후 전주 지역 출판 잡지 및 신문 창간호 20여점과 1947년 전주유치원 졸업사진 및 졸업증서, 하오마을(호성동) 등 생활 속 전주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전시됐다.

이와 관련, 시는 전시회 첫날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서는 100년 전 3·1운동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독립선언서의



주요 내용과 공약 3장을 다 함께 소리 내어 읽고 만세 삼창을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송호철 기자

익산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익산문화원 기획전시실에서 내빈 및 회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익산문화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취타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사물놀이, 마술, 한국무용 등의 식전공연에 이어 제1부 개회식에서는 모범임원 및 회원에 대한 조배국 국회의원 표창, 익산시장 표창, 익산문화원장의 표창 시상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과 유재구 의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제2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201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2019년 사업을 확정했다.

익산문화원은 지난 2월 19일 제1회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원 정등교체, 야외무대 가림막 이동설치 등 문화원 이용 시민을 위한 쾌적한 시설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취타대 약기 및 의상을 구입하여 취타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익산서동축제 기간 중 무왕제례 실시,



최근 익산문화원 기획전시실에서 제28차 익산문화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문화답사, 문화학교 운영, 전통혼례 재현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호 원장은 "익산문화원은 올해도 문화

로 행복한 삶, 문화가 있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사랑할 수 없다면 지나쳐라... 신현림 '사과꽃 당신이 올 때'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네/ 멀리 있어도 가까이 보이네/ 당신이 나로 살고/ 나는 당신으로 살고/ 서로 유리병 속에 갇혀 바라보네// 가까이 있어도 머네/ 가까이 있어도 손이 안닿네/ 유리병을 입고 다니며/ 그저 꿈꾸고 흔들리네/ 그저 슬퍼서 흔들리네'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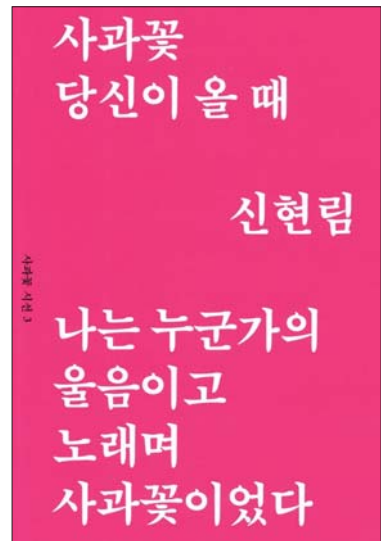
199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신현림(58)의 '사과꽃 당신이 올 때'가 나왔다. 시 75편이 담겼다.

'사랑할 수 없다면 지나쳐가라/ 피도 눈물도 없이 연민도 없다면/ 다른 세상에서도 부딪치지 말라// 비난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쳐가라/ 서로 응원의 약속이 아니고/ 산바람 같은 시원한 시선이 아니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으리' ('사랑할 수 없다면 지나쳐가라' 중)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이/ 착하게 살겠다/ 성서 한 컵 마신다// 해를 보고 바람에 몸을 씻으며/ 따스한 시 한 컵/ 당신께 드리니// 괴롭고 힘든 일/ 슬픔 한 컵/ 내주시는 당신//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세상 한 컵' ('하늘 물컵' 전문)

시인은 "이 시집에는 우리시대의 현실 속 혼란과 고통, 꿈과 절망, 경제적인 궁핍,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나의 고민 등을 담았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감옥에서 벗어나 저마다 깊이,



뜨겁게 울고 싶은 곳을 찾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내게 그곳은 사진작가로서 설치작업과 사진을 찍었던 사과밭이었다. 이곳은 비로소 내가 될 또 하나의 지구며, 지구의 상징이었다. 사과를 사랑의 상징이며, 풀이며, 작은 우주였다" 158쪽, 9900원, 사과꽃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